

❁ 어항, 어떻게 확충해야 하나?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필요

다기능 종합 어항으로 전개, 어촌관광 육성 시급

어항은 과거 30여년간 계속해서 개발되어 왔으나 투자의 미흡으로 계류, 박지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계류율 51%, 안전수용율 49%). 어항시설은 해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감척을 고려한 총어선척수 대비 실제 수용율이 5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선어민들은 태풍이 올 경우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든지 태풍권의 반대방향으로 이동시켜 피항을 하는 등 어항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애로를 겪어오고 있다.

이렇게 어선감척과 관계없이 어항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어선이 감척되는데 어항시설을 계속 확충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의문 제기 “어항 개발을 하다 말고 중단하라는 뜻이냐” 면서 일선 어업인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어항예산을 대폭 늘려 어항의 첫 번째 기능인 어선 안전 수용율을 높이고 주5일 근무제 등에 따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민의 휴양공간 제공과 어촌소득창출

을 위한 다기능 종합어항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 수요에 대응해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어항모델 창출 및 수산인프라시설 구축, 주변 어촌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집중 투자로 어업의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어항개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어항 개발 복안이다.

최근 국민생활 여건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어촌체험문화, 관광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휴양공간을 확충하는 등 새로운 기능을 창출할 수 있는 어항으로 개발하고 어촌정주 환경개선 및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어항개발과 함께 배후어촌에 대한 생활환경개선, 유통·가공 등 소득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어촌어항 개발의 초점이다.

또한 어업의 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어항 인근수역 및 배후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어촌지역의 전통문화생활과 어업체험을 매개로 도시민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 어촌관광산업을 육성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한편 어항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어항개발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 기르는 어업의 지원을 위해 어항내에 종묘 생산 및 중간육성장 시설을 확충하는 등 어항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생산·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항시설 주변 수역에 수산생물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환경친화형 어항으로의 준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해양수산부는 선진국형 어항 개발로 어촌정주권 환경개선과 어촌 종합개발사업, 어촌관광사업 등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투자효과를 증대하여 생산, 관광, 문화가 공존하는 「돌아오는 어촌」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어항협회에서도 이러한 계획에 따라 미래의 수요에 대비, 어항의 기능을 다원화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촌어항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조하여야겠다.

〈박원길 한국어항협회 기술상무이사〉

행복의 시작...

가족사랑
7종신공제

수업금제보원
1588-3119

- 실세금(공시이율)을 반영하는 변동금리형 종신보험
금리 하락시에도 연5.0%의 최저금리보장
- 저렴한 공제료로 평생동안 모든 사망(제1급 장애포함)을
보장함으로써 유가족 생활안정 도모
- 고객이 원할 경우 연금으로 전환하여 인략한 노후 생활보장
- 다양한 특약의 임의 부가로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공제금 증액 가능

국비보험(기원은 수협공제로)
수업금제보원
www.suhyup.co.kr